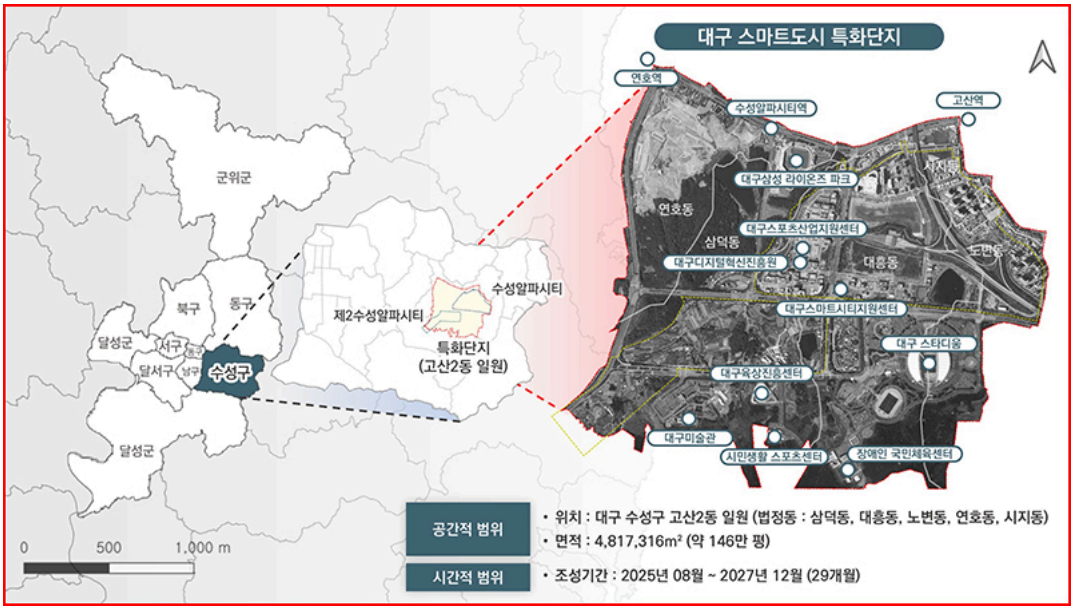
# 대구시, 전국 최초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지정

##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심의 통과 및 국토교통부 지정·고시 완료

대구광역시는 7월 2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전국 최초 스마트도시 특화단지로 지정·고시됨에 따라 수성알파시티 일원을 중심으로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위치도〉




대구 스마트도시 특화단지는 수성알파시티를 중심으로 조성될 계획이며, 대구시는 이 일원을 ‘모빌리티·로봇’, ‘지능형 관제·안전’ 특화 분야의 혁신기술 실증과 사업화를 지원하는 국가대표 스마트도시 산업거점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대구시는 2025년 6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 선정 이후 시행계획 수립과 중앙부처·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사업계획을 구체화했으며, 지난 6월 18일 개최된 ‘제34회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위원장 국토교통부장관)’에서 시행계획이 최종 의결됐다.

대구시는 그동안 스마트시티 혁신성장동력 프로젝트, 스마트시티 챌린지사업, 스마트서비스 솔루션 확산사업 등을 통해 축적한 실증 경험과 도시 데이터를 기반으로 스마트도시 산업생태계를 구축해 왔다. 특히 수성알파시티에 집적된 ICT·SW 기업과 연구기관, 대학 등의 협력체계를 강점으로 인정받아 특화단지로 지정됐다.

특화단지에는 초고속 통신망(5G, 위성통신), 데이터허브, AI 컴퓨팅 자원 등 첨단 실증 인프라를 구축하고, 국산 온디바이스 AI기반 첨단행정지원, CCTV 스마트관제, 로봇 안내견 등 시민 체감형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실증할 계획이다.

또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약칭 스마트도시법)’에 따른 규제특례와 규제샌드박스를 적극 활용해 기업이 신기술을 자유롭게 실증하고 사업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기술개발부터 실증, 상용화, 투자유치까지 연계 지원하는 기업성장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실제로 특화단지 조성사업에 참여하는 ㈜아리온 김용덕 대표는 “특화단지는 데이터와 AI 인프라를 활용해 기술을 검증하고 사업화

시정소식
대구공공
7월 18일
극복
1 대구
사업
2 대구
크,
3 대구
단 A
4 대구
까지
5 ‘202
개막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기술 경쟁력 강화와 시장 진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이번 지정을 계기로 지역거점 AX혁신 기술개발사업, DGIST 글로벌캠퍼스 건립, AI 로봇 글로벌 혁신특구, 국가로봇테스트필드 등과 연계해 스마트도시 산업생태계의 핵심 거점을 구축하고, 혁신기업 유치와 투자 확대, 기술사업화 촉진,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의관 대구광역시 미래혁신성장실장은 “스마트도시 특화단지는 기술 실증을 넘어 기업 성장과 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는 새로운 혁신 플랫폼이 될 것”이라며 “대구가 대한민국 스마트도시 산업생태계를 이끄는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 | | | | | | |
|---|---|---|---|---|---|---|---|
| **핫이슈** | 2026-07-02 | **담당부서** | 미래혁신정책관 | **전화번호** | 053-803-4194 | **담당자** | 박종찬 |

목록보기



동인청사: (41911)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 산격청사: (4154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전화번호 : 053)120
ⓒDaegu Metropolitan City all rights reserved.